

섬유산업의 지식산업으로의 이행

21세기의 섬유 산업은 장치 산업에서 점차로 지식섬유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.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·통신·환경·생물·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산업분야의 핵심소재로서 하이테크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용 섬유제품이 관련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. 한국이 섬유 산업의 지식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 품질 관리 면에서 약 90% 정도가 되지만, 신소재·신제품개발이나 독창적 디자인 개발이나 독창적 디자인 개발 등은 선진국의 60% 내지 70% 수준에 머물고 있다. 이러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QRS(Quick Response System) 구축 등과 같은 산업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세계 신산업용 섬유제품은 모든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 및 소재로 2010년까지 연평균 3.5% (DRA 근거)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중요한 산업분야다. 2001년 3월 발표된 “산업용 섬유소재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” 보고서(산업자원부)에 따르면 1999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업용 섬유산업의 비중이 국내의 경우 19.0%에 불과하나, 섬유선진국인 일본은 72.4%, 미국은 64.0%, 독일은 67.9%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한편 중국은 세계 제1위의 화섬 생산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1997년 10%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, 현재는 산업용 섬유의 비중이 약 30%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우리나라의 섬유산업에서 산업용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약 20% 수준이지만 2000년 12월에 수립된 “21세기 하이테크-섬유(Tech-Textile)의 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용 섬유산업 발전 종합대책”에 따르면 201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의 50%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